소비억제의 生活倫理

옛글에 민생재근(民生在勤) 근족불빈(勤族不貧)이라 하였다 즉, 잘 사는 길은 부지런하면 가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검입가(勤儉立家) 라고도 했다. 부지런과 검소와 절약으로야만 가문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 치장에만 열중하는것 같이 느껴진다. 명동거리의 호화상은 동경이나 홍콩이 무색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유학생이 고급아파트에 고급승용차에 고급카메라를 가진다고해서 미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과잉의욕의 시행착오로 귀중한 외화를 낭비했고 그리하여 적자운영에서 허덕이다가 파산한 실예가 제세와 율산외에도 허다한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고급승용차 고급양복, 고급식도락 같은것이 지도계급의 신변에서부터 추방되지 않고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내핍 생활의 기풍이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소득과 국민소비에 있어 소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면 부국민강을 기할수는 없는것이다. 물론 부유한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많으므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 하더라도 그 소비율은 우리보다 낮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자위할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우리는 현재 중진국 대열에 속하고 있으나 자본 축적에 있어 대만이나 홍콩에 뒤지고 있다 우리는 최소한의 소비와 최대한의 저축으로 국가 자본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국민은 코피, 담배 가구시설 유흥, 오락의 소비는 엄청나게 많다. 이것은 비생산적인 소비라는것을 뜻한다. 금년에 석유 소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1조억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돈이냐 말이다. 정부에서는 석유 소비 절약에 강력한 방책을 세우고 실천중에 있다 무리해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그 보다도 더 건실하고 생산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다는 말이다. 유흥비가 우리사회에 엄청나게 많아 술도 많이 소비된다. 유흥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인생 향락에

尹 相 元
(학술원 회원)

극치인것 같이 생각하여 거기에 빠져 버리는 경향은 없어야 하겠다. 잠깐 사는 인생 "아니놀고 무엇하리"하는식의 한국 전통의 유흥심리가 무제한 소비를 영웅화 한다. 우리는 개발 도상에서 이런것을 묵과 할 수는 없다.

근검절약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규범 이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제가의 교훈으로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이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생 생활에서 제외될 수 없는 원리이다.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국가로서나 이 미덕없이 건설과 번영을 기할수는 없다. 빚내서 집을 짓고 철따라 양복 입고 유행따라 부녀자의 의복이 새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억제 되여야 할 것이다.

수년전에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가례준칙이 제정공포 되었다. 이 성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니와 우리주변에 개선 되어야하고 시정되어야 할 일들이 어찌 그뿐이겠는가? 이것들은 우리들의 생활양식의 2차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식생활(食生活)은 인생의 근본 문제 라는 점에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요사이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생활의 근대화에 따라 주택과 의류(衣類)는 급속도로 이에 보조를 맞추어 사치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식생활의 양식은 의연히 구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도로 연변의 농촌 개량주택은 도시주택을 능가할 만큼 화려하다. 그러나 이들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쌀밥에 김치 깍두기 토장국이다. 이런 식생활은 오랜 전통과 관습을 토대로하여 형성 되었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쉬운일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및 관련기관이 치밀하고 철저한 교도와 거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는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촌 주택개량도 필요하지마는 이에 앞서 농촌 식생활 개선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도시 부유층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10여가지 또는 20여 가지의 부식을 나열하여 놓아야 잘 차린것으로 알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상을 받는데 실제로 먹는것은 기호에 따라 몇가지를 먹는데 경제적인 면으로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특히 쇠고기를 좋아하는데 상 하나를 차리는데 불고기 갈비찜 쇠고기 국등 쇠고기로 만든 4～5종의 요리가 오르게 된다. 쇠고기라면 소피, 소 내장, 소뼈까지도 이용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쇠고기 편식의 악습(惡習)을 가지고 있다. 영양학상으로 볼때 모든 육류는 단백질이 주성분으로 되여있고 지방및 무기물이 식물성보다 월등히 많다. 쇠고기가 영양분이 더 많은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기호성에서 우리는 쇠고기를 더 좋아 할뿐이다. 이러한 편식의 결과로 쇠고기의 수요가 급증되어 이에 충당코저 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무제한 수입하고 있다. 76년에는 1천톤 수입하던 것이 금년에는 7만톤을 수입해야 된다니 엄청난 수입이다

이의 부작용은 대단히 크다. 싸게 들여온 쇠고기가 시중에 풍부하기 때문에 160만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민은 물론 기타 양돈업자, 양계업자들의 피해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쇠고기 먹기 절약 캠페인과 동시에 닭고기 돼지고기 먹기 계몽 및 교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협회에서는 이런 사업에 소요될 자금이 마련되었다니 경하스러운 일이며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해당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일정말기에 소위 태평양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전부 일본군에 납품되고 우리국민은 년중 단 한근의 고기를 얻어 먹지 못하고 고기에 굶주린 경험이 있다. "굳은 땅에 물이 괸다"는 속담이 있다. 쇠고기 수입을 억제하는데는 내핍생활이 필요하다. 쇠고기를 덜 먹고 대신 닭고기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공급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중류층 이상의 쇠고기 편식의 악풍이 일소되어야 하며 전국민의 내핍생활이 문제 해결의 초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2차 대전후 국민 식생활개선의 첫 시도로 전국국민학교 어린이에게 점심 한끼에 우유 또는 쏘세지 또는 계란에 식빵을 주는 급식제도를 실시한 결과 놀랄만큼 체위가 향상 되었다 한다 농촌 주택 개량도 좋은 일이나 식생활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국민학교 어린이에 대하여 더 많은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행정 당국 및 국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방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우리도 적극적이고 실효있는 방법으로 식생활 개선을 도모할 것이며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급식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의 분수에 맞는 생활 윤리를 통해서 지금의 처지에서 더 큰 선진대열에 뛰어 오를 수 있는 긍지와 의욕을 가지고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